

하나님의 말씀

죄와 용서 2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4374 죄의 홍수. 종말의 때. 세상적인 성장.....	4
죄에 대한 형벌.....	5
4510 공의. 죄를 향한 속죄. 심판.....	5
2390 보응과 속죄와 양육의 수단. 악한 행동에 동의하는 일은 죄이다.....	5
3321 마지막 심판. 죄에 대한 형벌과 은혜의 역사.....	6
4009 하나님은 온유하지만 공의한 심판자이다. 이 땅에서의 속죄.....	8
6242 죄에 대한 형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운명.....	9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1
3315 자녀와 손자를 통해 죄짐이 해결되는 일.....	11
4618 아버지의 죄가 그의 자녀에게 복수하는 일.....	12
6691 집착. 조상들의 죄짐.....	13
8296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자녀들에게 징계하는가?.....	14
고백과 참회 의식 - 사람을 통한 죄의 용서에 대해.....	16
0444 죄에 대한 용서.....	16
0445 죄 사함.....	17
1482 죄의 용서. 무오설. 관습적인 행동.....	17
3297 죄를 사해주거나 사해주지 않는 일. 예수님의 제자들.....	18
4166 죄사함의 역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21
8373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는 자들에게.....	22
죄의 용서.....	25
5428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25
5261 죄의 용서.....	26
5262 죄의 용서.....	27
7442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28
864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사랑의 정도를 높이는 일.....	30
죄짐이 사후세계에 미치는 영향.....	32
3307 큰 죄짐이 저세상으로 들어가는 일을 막는다. 파문.....	32
3909 저 세상의 죄짐. 속죄 또는 용서.....	33
4081 저세상의 혼의 후회.....	34
4888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죄짐.....	34
6220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36

영원한 저주는 없다.....	39
5593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39
6155 영원한 저주는 없다.....	40
7910 영원한 심판은 잘못 된 가르침이다.....	41
3691 혼을 정화하는 고난과 환난.....	42
5379 타락한 존재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	44

죄의 홍수. 종말의 때. 세상적인 성장.

B.D. No. 4374

1948년 7월 13일

죄의 홍수 당시와 마찬가지로 너희는 종말 직전에 있다.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쾌락에 빠질 것이고, 그들의 육체의 정욕과 죄를 즐길 것이다. 그들은 예절이 없고, 부도덕한 삶을 살 것이고, 위로 향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 한 분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더 이상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성장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전혀 도달하지 못한 영적으로 침체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들은 소수의 신자들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적대적이고 박해하고, 신자들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금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탐닉하고 먹고 살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다. 왜냐면 그들은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사는 악마를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해체가 단지 사람이 더 이상 높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끝낼 것이다. 이 때가 더 이상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없게 최악된 때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완전히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때를 끝낼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사람들이 최근까지 계속하여 살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가운데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걸보기의 발전을 알아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제공될 것이고, 세상을 향한 욕망이 아주 강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양심이 없이 자신의 감각이 갈망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용할 것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대항하는 싸움이 있게 될 것이고, 승리자는 사랑이 전혀 없이 그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스스로 그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그가 삶의 즐거움을 더 즐기도록 재촉하는 사탄을 후원자로 삼기 때문이다.

죄가 넘치게 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될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마귀의 참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성장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멸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죄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시간이 오고, 하나님의 공의의 날이 오고,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날이 오고, 적은 수의 하나님에게 충실하고 세상의 유혹에 희생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보상을 받는 날이 온다. 구원 시대가 끝나간다. 왜냐면 인류가 멸망 받기에 합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공의. 죄를 향한 속죄. 심판.

B.D. No. 4510

1948년 12월 13일

사람들이 내 공의에 도전을 한다. 왜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들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성이 없고, 그들은 심장 안에 사랑이 없고, 전적으로 교만하고, 관능적인 정욕이 가득하고, 이웃을 향한 연민이 없고, 전적으로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하고, 그들의 사랑 없음으로 인해 가장 최악의 행동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런 계명을 준 나 자신에게 죄를 짓는다.

그러나 내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내 사랑을 잃는다. 그는 내가 그를 심판하기까지, 즉 그가 물질 안으로 다시 파문을 받기까지 나로부터 멀어지고 더욱 강박하게 된다. 그러면 내 공의가 만족된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심판한 것이고, 영원한 내 법칙은 단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거이다. 이런 일은 실제 사람이 동시에 이런 일을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즉 피조물들을 향한 내 사랑이 베풀어지고, 절대로 분노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심판이라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

공의는 절대로 사랑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공의는 속죄를 요구한다. 이로써 죄 자체가 힘을 잃게 한다. 왜냐면 내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단지 공의한 속죄를 통해 이런 고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 가운데 거한다. 즉 그는 고통이 충만한 묶임을 받은 상태에 거한다. 그는 댓가를 치러야만 하고, 그는 그가 인간으로 자원하여 행하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도록 강요를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섬겨야만 한다.

사람이 자신 안에서 사랑이 깨어나게 하면, 그는 자발적으로 섬긴다. 그러나 죄악과 부도덕은 사랑을 물리치고, 그가 섬겨야 하는 곳에서 다스리려고 시도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은 죄악되다. 인간의 단계에서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그는 다시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의지의 시험을 치를 수 있기 위해 섬기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나에 의한 이런 성장과정은 단지 내 공의이고, 그러나 분노에 기초한 일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일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 이로써 그가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을 사람이 항상 자유의지로 스스로 정한다.

아멘

보응과 속죄와 양육의 수단. 악한 행동에 동의하는 일은 죄이다.

B.D. No. 2390

1942년 6월 30일

모든 불의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이미 이 땅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로써 사람이 불의를 깨닫는 법을 배우게 된다. 왜냐면 자신이 이웃 사람에게 준 고통을 자신이 당하

는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벌이 속죄이자 양육의 수단이고, 동시에 이중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든 잘못은 속죄되어야만 하고, 만일 그가 이 땅에서 불의를 깨닫지 못하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불의를 저 세상에서 갚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가 패권과 권력과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한 싸움에 절대로 선하다고 할 수 없는 수단에 사용한다. 그러므로 인류는 죄 위에 죄를 쌓는다. 인류가 저 세상에서 죄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게 되지 않으려면, 인류는 이제 이 땅의 삶에서 공의에 따라 속죄를 해야만 한다. 이런 일이 동시에 또한 현재 이 땅에 환난이 임하는 원인이다. 악한 행동에 동의함으로써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불의를 아직 깨닫지 못하므로, 그가 깨닫도록 그는 동일한 고통을 견뎌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행동으로 옮겨진 죄만이 죄가 아니라, 죄에 동의하는 일도 죄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런 동의는 악한 행동을 하려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비열한 행동의 가해자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난과 비참함을 당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의한 행동을 불의로 여기지 않는 않는다면, 그들의 생각은 좋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양육을 받아야만 하고, 따라서 악한 역사가 자신의 몸에 미치는 결과나 영향을 느끼게 되야만 한다. 의지는 여기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일로 간주되고, 동시에 양육의 수단인 보응을 받게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나쁜 점을 깨닫고, 그에 따라 그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모든 악행은 항상 새로운 악행을 낳고, 이런 악행이 공의한 처벌로써 항상 더 깊은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 심판. 죄에 대한 형벌과 은혜의 역사.

B.D. No. 3321

1944년 11월 8일

종 말을 앞두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그들의 무기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께 충실한 소수를 제외하고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죽은 후에도 계속 산다는 믿음이 없고, 영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본 것을 믿고 자신들이 보는 것의 멸망을 본다. 그러므로 그들의 상태는 절망적이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너무 높게 평가했고, 이제 그들에게 이 삶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들의 혼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끔찍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왜냐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혼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접근하고 있음을 느끼고, 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므로 그들의 혼이 부족하게 성장한 가운데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믿는 사람은 침착하게 종말을 기다린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호받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죽음 후의 삶도 또한 그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죽음 후의 삶이 그에게는 실제적인 삶이고, 그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 끔찍한 시간이 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이 땅의 빛을 어두움 속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연합하여 분노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들에게는 구원으로 보이는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지막 시간을 갈망하고, 침착하게 이 땅에서 부름 받기를 기다린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에 앞서 일어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를 통해 저항할 힘을 얻는다.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 시간이 올 때까지 분노하다. 사람들의 잔인함이 서로를 능가하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크게 대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판을 향해 빠르게 가기 때문이다. 땅에서 불길이 올라와서 불길이 붙잡는 모든 것을 삼킨다. 사람들은 눈 앞에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본다. 그러나 그들의 비참함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을 향한 박해의 시기에 그들 자신이 지은 죄의 분량을 능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의 분량이 넘쳐 단지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는 일로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는 오랜 기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 죄값을 치른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죄인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압도적으로 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신자들에게 축복이 압도적으로 크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위험이 오랫동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일어나게 될 과정을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권세가 자신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처벌하고, 사탄 자신과 그에게 복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묶임을 받는다. 이때에 이 땅은 살아 있는 마귀들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들 모두가 전적으로 그들의 권세자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강요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탄을 따랐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야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었고, 이런 일은 완전한 무기력함과 가장 심한 포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포로상태는 한때 힘이 충만하고 자유한 가운데 움직일 수 있던 영적인 존재에게 상상할 수 없게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의식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가장 굳은 물질 안으로 추방되는 역사는 또한 이런 영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되도록 돕기 위한, 영적인 존재에게 그가 원래의 상태에 다시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그러나 죄짐의 크기가 또한 고통의 정도를 정한다. 이런 고통은 실제 형벌이자 죄에 대한 속죄이다. 그러나 동시에 개선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사람들에게 잔인해 보일 정도로 심한 이런 수단은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인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의지의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이런 존재를 퇴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하나님의 모든 도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곳으로 다시 퇴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사건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지나 가게 한다.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래를 향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싸우는 자에게 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와 같게 된다.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파문을 받는 일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전적인 파문은 항상 가장 큰 고통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단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일이 존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는 존재의 원래의 상태와 정 반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존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한다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의 고통을 체험해봐야만 한다. 이로써 존재가 자신의 뜻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한다. 존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주 대적하여,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굳은 물질 안에 머무르는 일이 끝없이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의 강박함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알고, 영적인 존재의 곁형체를 느슨하게 한다.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가 순복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영적인 존재의 곁형체가 느슨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영적인 존재가 자유의지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영적인 존재는 이제 다시 결정해야 한다. 왜냐면 이런 결정이 완전한 자유 의지로 내려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심판은 단지 비록 사람들이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지은 죄의 분량에 대한 심한 속죄와 연결되어 있지만, 단지 영적인 존재를 다시 얻기 위한 역사이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장하는 일이, 즉 의지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중단시킨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은 후에 인류의 번식을 위해 이 전에 소수의 선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살아있는 육체로 들어 올려, 그들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리하는 일이 종말이고,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를 벌하는 일이 종말이다. 선한 자는 새 땅에서 낙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악한 자는 끝없이 긴 기간 동안 투옥에 처해지는 심판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은 온유하지만 공의한 심판자이다. 이 땅에서의 속죄.

B.D. No. 4009

1947년 3월 27일

이웃 사람에게 악한 일을 원하는 사람은 자주 같은 악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자신이 지은 죄짐을 이 땅에서 속죄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균형을 이루는 공의이다. 그러나 그에게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의 모든 죄짐을 벗기가 훨씬 더 어려운 저 세상의 나라로 가져가야만 하는 일이 필요 없게 되는 일은 다시 은혜이다. 이 땅에서 형벌을 통해 혼이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고, 혼은 후회할 수 있고, 이로써 더 쉽게 속죄할 수 있다. 반면에 저세상에서는 깨닫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고통을 통해 혼이 점점 더 완고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자신의 불의를 보고 후회하지 않고, 때로는 비록 그 자신이 악한 일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이웃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 그는 강박해지고, 그의 죄짐을 저세상의 나라로 가지고 간다. 이 말을 먼저 해야만 한다. 이로써 왜 무한한 수의 사람들이 종말의 때 큰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지, 왜 그들이 끔찍한 고난 가운데 이웃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도울 수 있었고, 도울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때에 그들이 이웃사람의 고난에 무감각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의 죄와 태만했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한다면, 그들이 이제 자신을 인정하고 그들의 불의를 회개한다면, 처벌도 그들에게 견딜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죄는 이 땅에서 이미 줄어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고난이 그들에게 축복

이 된다. 왜냐하면 고난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들은 진지하게 자신을 분별하고, 그들의 불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실로 죄짐의 크기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대한 재판관이고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가 받을 형벌을 줄이고 그를 용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용서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대하지만 공의한 심판관이기 때문이다.

아멘

죄에 대한 형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운명.

B.D. No. 6242

1955년 4월 21일

어는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신의 고통이 충만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죄에 대해 그에게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모든 일과 모든 잘못 된 생각과 행동의 효력이 나타나고 바로 이 효력들을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고 이를 고통으로 형벌로 느끼게 된다. 이런 형벌은 항상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죄 많은 삶을 살고 나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신적이고 순수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드는 죄에 대해 회개해야만 할 필요가 없이 배설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그들은 죄를 죄 위에 쌓아 올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꼼짝하게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들의 삶과 행동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견뎌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하도록 이끌림을 받고 이 땅에서 떠나도록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하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아직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세상에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을 끝없는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어두워진 영으로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하고 그의 이 땅의 삶에 대해 후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가 스스로 빛과 힘이 없고 모든 고통을 느끼는 이런 상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나를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은 내 영원한 질서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가 알았다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사랑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준비하기를 원하고 절대로 축복되다고 할 수 없는 운명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사람들을 쉽게 해주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인도를 받기 원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잘못 된 행동을 하면, 그들은 그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만 한다. 그들은 절대로 내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만든 운명을 주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끔찍한 고통을 알고 존재가 이런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또한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내 영원한 질서의 법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행할 수 있고 이웃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랑 자체가
고 항상 너희를 축복되게 해주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축복되게 해주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경건하지 못한 갈망이 또한 경건
하지 못한 운명과 가장 극심한 고통과 어두움과 가장 고통스러운 포로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
이다. 이런 상태는 자유가 없고 무기력한 상태이고 항상 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존재 자신
이 이 땅에서 영원한 내 계명에 어긋나게 산 삶에 대한 형벌을 불러드린다.

아멘

자녀와 손자를 통해 죄짐이 해결되는 일.

B.D. No. 3315

1944년 11월 2일

죄의 결과는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런 일은 모든 죄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하고, 다시 죄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그러므로 정당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형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끌어드린 일이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결과가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손들이 이전 세대가 지은 죄짐을 견뎌야만 한다.

이런 일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인다. 그러나 성숙하기 위해 특히 어려운 삶의 조건이 필요한 혼들에게, 그들의 삶의 길을 위해 특히 어려운 생활 조건을 선택한 혼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어드리지 않은 고난을 견디고 이런 고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혼과 영적으로 접촉한다. 저세상에서 이 죄짐을 감당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저세상에 까지 따라온 이런 죄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혼은 죄짐을 감당하는 혼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은 자녀와 손자의 속죄를 받아드린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같은 운명을 겪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웃 사람들에게 초래한 고통을 견뎌야만 하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는 항상 그에게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는 그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는 자신이 초래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자손을 구한다. 그러나 그가 이 죄짐을 가지고 저세상으로 간다면, 저 세상에서 그는 이 땅에서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각을 통해 영향을 미쳐 그가 한때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속죄하기 만들기 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와 가까운 사람은 아버지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이 땅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자녀와 손자들이 죄의 크기를 과소 평가한다면, 사람들의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받아들이게 한다. 저세상의 죄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볼 때 극심한 고통을 겪고, 따라서 그 죄는 두배로 속죄가 되고, 그에 따라 더 빨리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이 아버지의 죄에 대해 안다면, 형벌을 감당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형벌이 그에게 의로워 보이고 그의 혼이 이 땅에서 더 빨리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으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후회하고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아주 쉽게 된다. 그러면 그의 죄의 결과도 사라질 것이

고, 그는 그의 죄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갚아야만 하게 되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죄가 그의 자녀에게 복수하는 일.

B.D. No. 4618

1949년 4월 19일

조상들의 죄는 여러 세대 동안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너희는 가르침을 받았고, 너희는 자주 이 가르침에서 죄인이 진지하게 회개하면,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그의 형벌에서 풀어주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에 모순을 발견한다. 너희는 사람들 자신에게 어떤 책임도 없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희생자가 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역사한다. 비록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일지라도 육신을 입기 전의 혼의 성품이 영향을 미쳐, 스스로 죄 많은 인간을 택해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난다.

이런 혼들은 특히 본능적이고, 끝없이 긴 성장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고통이 큰 형체를 바꾸는 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주 특별하게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아직 그들의 충동을 버리지 않았고, 이제 본능적으로 그들과 유사한 인간 혼에게 향하여 본능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희망한다. 그들이 한 육체 안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 거하게 되면, 그들은 자주 희귀하지 않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욕망과 같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제 성격과 나쁜 성질을 물려받았다고 말한다.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혼은 절대로 그런 육체 안으로 육신을 입지 않는다. 왜냐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혼이 성장하는 일이 위험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결점을 가진 혼은 또한 이 땅에서 자신의 결점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혼이 겉으로 보기에 자신의 잘못이 없이 받은 이 땅의 운명을 통해 자기 자신의 결점과 충동을 깨달을 수 있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혼은 모든 면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혼의 의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혼은 성품대로 살고, 조상들의 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항상 일정한 의지의 자유 가운데 일어난다. 왜냐면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강요받고 있다고 믿고, 모든 책임을 거부하려고 시도하고, 자신과의 작은 싸움도 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가 원한다면,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나 의지가 육신을 입기의 시작한 때부터 악에게 기울어졌고, 이런 의지가 스스로 혼이 거하게 될 형체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혼이 이제 인간으로서 의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절대로 배제되지 않는다. 이로써 사슬의 고리가 끊어지고, 아버지의 죄짐도 그런 자녀 때문에 벗겨질 수 있다. 왜냐면 본능적인 사람의 의지는 그 자체로 강한 의지이고 단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된다면, 그의 의지는 또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따라서 그의 조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저세상의 조상의 고통과 비참함을 줄여줄 수 있다.

집착. 조상들의 죄짐.

B.D. No. 6691

1956년 11월 17일

 든 사람은 나에게 의해 자신의 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을 보장하는 은사를 받았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타고난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 안의 혼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허용받는 성숙한 정도에 있다. 그러나 이제 깊은 곳에서 온 세력들이 사람의 몸을 차지할 수 있고 사람이 내 계명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행하면, 이를 외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실제 이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혼이 이런 세력들에게 저항할 수 없다. 이런 세력들은 혼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그들의 악한 성품을 실행한다.

내가 이런 일을 허용하는 데는 지혜로운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세력들이 혼을 점령할 수 없도록 혼을 돕기 때문이다. 이런 일로 인해 발생하는 조용한 고통을 통해 혼이 성장하고 혼의 정화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비록 이웃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지옥으로 가기에 무르익은 가장 타락한 피조물이라고 믿을지라도 이런 혼의 이 땅의 과정은 성공하지 못한 채로 머물지 않게 된다.

종말의 때에 지옥은 모든 악한 영들을 내보내고 악한 영들은 이제 자신이 태어나게 하지 않고 연약한 몸을 소유하면서 그들의 거주지를 찾는다. 그러면 자주 당한 사람 자신은 선명한 이성이 없고 전혀 책임감이 없고 그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자신을 의식하는 혼이 육신을 입었다. 그러나 혼의 실제적인 이 땅의 과제를 수행하는 일에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 방해 받고 악한 영들은 그들의 주인의 사명을 받아 날뛴다.

이런 사람들의 혼은 아주 특별하게 힘든 이 땅의 과정을 겪는다. 그런 일에 대한 이유는 가장 다양하다. 그러나 혼들은 영적인 보호를 받고 억압자 앞에 혼들의 무기력과 혼들에게 고통스러운 두려움이 평범한 이 땅의 과정보다 혼의 정화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다. 이런 세력들이 인간의 몸을 벌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은 자주 그들의 죄가 그들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자신의 잘못이다. 그들은 이 땅의 삶에서 내 대적자의 영향을 너무 자원하여 받도록 허용하고 큰 속죄를 요구하는 일을 행하고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직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런 죄짐을 짊어진다. 그러나 후손들의 혼은 그들 안에 같은 악한 본능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상들의 죄로 인해 약해진 몸이 악한 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악한 영들이 그의 혼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방해를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조상들의 죄에 대한 속죄로서 혼에게 육체적 고난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혼이 악한 영들을 통해 절대로 해를 입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혼이 자신을 희생했고 이런 희생을 통해 혼은 자신을 구원하고 또한 저세상의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도와 그들의 불의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자녀들에게 징계하는가?

B.D. No. 8296

1962년 10월 11일

잘못 된 생각이 너희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못 된 생각이 다시 많은 잘못 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순수한 진리 때문에 설명을 갈망을 하면, 너희는 설명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내 공의를 믿어야 하면, 너희는 나를 불의하게 벌을 주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며 가르치는 나에 대한 잘못 된 개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아버지의 죄를 4대에 걸쳐서 벌하리라”는 말을 의미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런 잘못 된 관점을 너희에게 가르쳐 왔다.

내가 공홀이 없어서 아버지의 죄를 자녀의 자녀까지 대가를 치러야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모든 혼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대한 책임이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영접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이미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 까지 아버지가 지은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효력이 나타나는 죄는 단지 특정한 죄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죄악 된 아버지의 삶으로 인한 연약함과 신체적인 장애, 혼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나타나는 효과는 이웃들도 볼 수 있다. 이제 연약함과 장애를 내 편에서 주는 별로 여기고 있다.

죄악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동안에 스스로 자신의 자녀들의 불행에 대한 죄의식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도 벌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공의로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죄를 십자가 아래로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사함과 구속을 구할 때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마찬가지로 벌을 받게 된 자녀는 바로 힘든 운명을 통해 빠르게 혼의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런 이 땅의 과정을 의식하며 스스로 짊어진 혼들이다.

왜냐면 이 전에 혼들에게 이런 운명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운명을 자신이 짊어지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항상 단지 혼의 성장에 관한 일이고 인간으로써 육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크게 또는 적게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이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보다 빠르게 완성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아직 알지 못하는 너희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사는 삶이 너무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 근거한 어려운 운명을 맞이하면, 항상 불공정한 것으로 원망한다.

귀환의 과정을 위해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보지 못한다. 너희는 항상 단지 불행한 상태를 내가 사랑이 없고 불의 한 것으로 바라보고 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자연적인 것이던 영적인 것이던, 법칙에 따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불의는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러나 나타나지 않게 그의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면 항상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내 공의가 사람들에게 그가 아직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아주 지나치게 큰 짐을 가지고 저세상에 들어가지 않게 짐을 덜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면, 그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석을 찾지 못했으면, 이 땅의 삶에서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책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면 그는 이미 한걸음 성장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서 범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저세상에서 무능력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의지는 그의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제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가 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을 혼들이 자주 자신과 같은 성향을 깨달아서 이런 사람들과 연결 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돕기 위해 혼들이 의식적으로 어려운 이 땅의 과정을 짊어진다.

아버지의 죄가 4대에 걸쳐서 벌을 받을 거라는 말은 내 영원한 질서를 심각하게 어긴 것이 자연법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단지 이해해야 한다. 내가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면 이 결과가 다시 다른 혼들에게 그들이 높은 곳을 향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처신할지는 혼이 다시 새롭게 육신을 입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의지인 것처럼 사람들의 가장 자유로운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내 편에서 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는 오류이다. 왜냐면 무슨 일이 혼에게 닥치던지 간에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던지 간에 혼에게 단지 최선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어떤 혼들은 그들 스스로 높은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높은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려고 했으면 그의 고난은 줄어 들고 그의 이 땅의 운명은 쉽고 견딜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항상 단지 내 불의로 보기를 원하면,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 대한 너희의 무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너희가 항상 단지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의 시간은 단지 짧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너희 사람들은 영원을 위해 많은 보물을 모을 수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에게 너희의 죄를 사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는 많은 불의의 대가를 치를 수 있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죄에 대한 용서...

B.D. No. 0444

1938년 5월 31일

내면으로 들어가 너희의 죄를 깨달으라. 너희가 잘못했다면 주님께 용서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이 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심장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지속적인 기도로 너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희가 이 번의 삶에서 단지 특권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간 것으로 믿는 사람들만 주님이 용서한다고 믿는다면, 계획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주어진 형식을 잘 따른 후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믿는다면, 주님은 너희에게 더 나은 것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너희가 가장 깊은 심장에서부터 너희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한 진실된 후회를 느끼고, 동시에 주님, 구세주에게 그가 너희의 죄를 벗겨 주기를 그의 신적인 공훈에 간청하고, 하나님의 구세주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갖는다면, 구세주의 신적인 사랑으로 너희는 너희의 죄로부터 너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사람이 불의로 깨닫는 모든 것을 심장에서 경멸해야만 한다. 이는 그 안에 죄를 피하려는 결심을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불의를 통해 아버지를 절대로 슬프게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생각을 갖는다면, 경멸과 깊은 후회는 자신을 개선시키려는 결심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주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후회하는 죄인을 자신의 심장으로 영접하고, 그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관습과 습관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습과 습관이 이 세상에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큰 악과 모독적인 행위가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주는 일이 진정한 믿음을 죽이는 악습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고, 죄를 사해주는 일에 결과적으로 심장의 느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이로써 최소한 죄인이 열심히 전적으로 하나님과 느낌으로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지만, 실제 죄를 사해주는 일이, 사람들의 심장이 주님을 통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선행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항상 또 다시 비록 근본적인 생각과 그들의 의도가 선하고 고귀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지하게 깊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의무적인 형식을 행하는 일에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깊은 의미는 사람의 혼의 구원을 위해 아주 필요한 것이다. (중단이 됨, 계속 이어짐)

1938년 6월 1일

어떤 사람도 자신이 스스로 자신 죄를 용서해줄 수 없다. 죄사함을 위해 항상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권세가 없다. 단지 그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이 가운데 사람의 심장이 가장 깊은 곳에서 감동이 되어, 즉 그가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때만 예외이다.

항상 이 땅의 자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행하는 의식은 단지 은혜의 역사를 비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겉 보기에 의무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죄의 고백은 전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반대로 이러한 형식이 없이, 아버지 앞에 깊이 후회하는 죄의 고백은 진정한 죄사함을 준다. 사람들은 자주 비록 그들이 이 땅의 교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따를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를 알지 못한다. 심장 깊은 곳에서 원해서 나와야 할 것들이 전적인 기계적인 행위로 바뀌어 졌다.

이런 의무를 충족시키는 일은 항상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심장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 창조주요 구세주와 깊은 연결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충만한 은혜를 이 땅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항상 그들이 더욱 더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의 구세자가 없이 이 땅에서 살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첫 걸음은 그가 스스로 내딛어야만 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자신은 이를 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찾아낸 것처럼, 내면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가 죄를 깨달았다면, 그는 이 죄를 경멸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후회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소원이 생긴다. 그러면 심장으로부터 죄사함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이 기도는 자신의 큰 사랑으로 유일하게 모든 죄를 용서하는 분의 귀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죄의 용서. 무오설. 관습적인 행동.

B.D. No. 1482

1940년 6월 20일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행하는 의식은 단지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친 것의 상징이다. 이런 의식을 수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단지 유일하게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에 달려 있고, 긴밀한 단둘의 대화 가운데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에게 긍휼과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다시 단지 혼에게 위험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기계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의식을 외부에 알 수 있도록 만들기에는 의식은 아주 많이 내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는 그가 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정해진 의식에 참여하면서, 피상적이 되게 할 수 있는 의식이다.

혼의 구원을 위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의식은 쉽게 죽은 행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죄사함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모든 외적인 의식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징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이제 너희가 처한 위험을 알려준다면, 너희는 반항하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께 그가 너희를 올바르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해 심장으로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내면의 성장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많은 힘을 외적인 형식을 갖추는 일에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으로 하는 긴밀한 생각이 하나님의 동의 없이 사람들에게 준 교회의 계명에 부지런히 따르는 일보다 너희에게 훨씬 더 큰 은혜를 준다. 교리의 대표자들은 다시 인간이 만든 교회의 우두머리에게 오류가 없다는 교리에 의한 영적인 규정 뒤로 숨는다. 위로부터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은 가장 순수한 진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위로부터 자신이 주는 계시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린다. 하지만 결코 사람들을 정하거나, 그들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법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선포하는 법은 하나님이 준 계명에 개입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공식적으로 조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계명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규정을 따라 행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그는 이미 그런 계명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곳에서 특정한 시간을 정하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 묶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주 큰 인간적인 오류이고, 사람의 사랑의 역사가 아주 특별하게 활발하여, 이제 영이 깨어나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실제의 뜻을 깨닫게 되지 않는다면, 이 오류는 싹이 난 작은 식물의 하나님을 향한 내적이 갈망을 죽이는 위협을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준 교리에서 이미 크게 벗어난 교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 일은 혼에게 가장 크게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혼이 의식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한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혼에게 어떤 계획이 제시되어, 이를 수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 편에서 행한 선행되는 일을 통해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을 소홀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은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믿는다.

아멘

죄를 사해주거나 사해주지 않는 일. 예수님의 제자들.

B.D. No. 3297

1944년 10월 17일

너희가 죄를 용서하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나의 말이고, 사람들이 내가 해석하는 것과 다른 많은 해석들을 했다. 이를 교정하는 일에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 사람들에게 나의 깨달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18/44

음을 전하는 깨어난 영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로써 너희가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내 제자들은 능력을 덧입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치유하고, 죽은자를 살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를 향한 분산되지 않은 믿음의 힘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힘과 빛으로, 권세와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진리 안에 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말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제자였고,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면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의해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사랑 안에 섰고 나를 믿었고, 이를 통해 그들도 나의 영을 받아들이고 나의 영을 통해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역사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증거였고,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이 나의 뜻대로 산다면, 다시 말해 나의 형상에 따라 자신을 형성한다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증거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힘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랑 안에 서게 되면, 그는 또한 힘과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힘의 발산이 그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였고, 그들에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고, 나의 죽음 후에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다시 선포하고, 사람들이 나를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모범을 남겼다.

그러나 비록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영 안에서 내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인도한다. 왜냐하면 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모든 존재는 나의 신적인 인도를 받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제 내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이제 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자신의 발산인 나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또한 내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특별히 만약에 질병이 그들의 죄의 결과일 때,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은 또한 사람들의 죄 자체를 덜어줘야만 한다면, 내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람들의 무가치함, 사람들의 불신과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의지를 깨닫는다면,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최악된 상태로 남겨 둘 자격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적인 깨달음으로 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음과 그들을 향한 은혜로운 역사가 쓸모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깨달음에 따라 사람들을 고려할 권리를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나의 영이 역사했고, 나의 영이 나의 제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보장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안에 나의 영이 아직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권리를 가졌다고 거만하게 착각하고, 그들은 사람 안의 하나님의 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갖게 되었다. 즉 제자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이 그들의 영을 따른 이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 그대로 이런 권리를 인정했고, 이로

써 비록 그들이 이제 또한 올바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가 진실로 나의 제자인지 선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위해 부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제자들에게 다음 사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그러나 가르칠 수 있으려면, 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들이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하고, 세상에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제자들은, 그들이 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도 빛과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의 힘이 그들이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즉 사람들이 나와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나는 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성숙한 영의 상태를 통해 사람이 언제 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 대신에 행하기 때문이고, 실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이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에 의해 부름 받았음을 전혀 증명할 수 없고, 나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지 않았고, 그들 안에서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부름 받은 것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그들이 이웃 사람의 죄를 용서할지, 죄 가운데 놔둘지 판단하기 위해 이웃 사람을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를 판단하는 일이 이미 영의 역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고 믿는 대부분의 종들이 내면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나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왜냐하면 단지 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식을 주기 때문이다. 즉 단지 나의 말씀이 그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로서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기 위해 순수한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스로 진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 사람이 자유로워 지도록 돕는다. 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갖게 되는지를 판단할 능력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말은 자주 기만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말에 심장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올바른 제자는 자신의 이웃 사람을 깨닫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해 진지한지를 알고, 내적인 확신이 없이 말하는 많은 말에 속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 일반적인 역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단지 가장 깊은 회개가 선행되고, 나의 제자들이 그런 회개를 깨닫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의 판단은 내 앞에서 유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나의 사명대로 행하고, 그의 역사가 항상 나의 뜻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로 나의 제자들이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 일하여, 그들이 내 뜻과 달리 생각할 수 없고 원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면, 그들의 행동과 생각이 나와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이 땅에서 나를 섬기는 종을 부르기 때문이

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누가 이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 있고, 누가 이 땅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위해 요구되는 은사를 갖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또한 그들에게 권세를 준다. 왜냐면 그들은 단지 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아멘

죄사함의 역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B.D. No. 4166

1947년 11월 14일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영적인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죄를 사해주는 의식을 단지 형식으로 여길 수 있다. 사람이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그가 또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짐을 벗게 한다. 왜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를 위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죄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무리에 속하려는 의지이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회개와 즉 죄를 통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겼다는 깨달음은 죄사함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계속되는 전제 조건이다. 사람은 실제 심장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입으로 회개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죄짐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로써 그가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는 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에게서 죄짐을 벗겨 줄 수 없다. (1947년 11월 13일)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짐이 그를 짓눌러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문다.

그러나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1947년 11월 14일) 사람이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그가 겸손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런 공개적인 고백과 그가 죄를 용서받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대로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혼이 성장해서 그들이 꿰뚫어 보게 되었고, 귀가 밝아지게 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예수는 죄의 결과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 말했고, 제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한 죄인들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그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기를 구하게 만든 죄에 대해 말했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 후에 일반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 생겼다. 그러나 이는 단지 다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변형시킨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죄사함이 달려 있다고 믿고, 죄의 고백이 자주 형식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깊은 내면의 후회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과 죄를 혐오하는 일과 진지하게 개선을 향한 갈망하는 일이 단지 사람의 심장에 연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죄의 용서는 단지 유일하게 이런 요소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내면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해 이뤄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중계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단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추가한 계명이다. 그러나

이 계명은 아주 강한 관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모순이 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외적인 것들이 진정한 내적 헌신과 전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자신의 계명대로 사는 일로 완전히 대체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외적인 요소는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적게 관심을 갖고, 단지 인간이 추가한 요구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혼에 대한 작업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한다.

깊은 회개의 결과인 죄를 혐오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이런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일이 사람들의 영적인 퇴보를 증명한다. 죄사함의 의식을 진정한 의미대로 만들지 않고, 항상 각 개인의 내적인 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꼭 일어나게 된다. 죄사함의 의식을 진정한 의미대로 만들고, 항상 각 개인의 내적인 일로 만든다면, 사람이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자신을 양육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제시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되게 죄의 용서를 묘사하는 일이 또한 자원하는 사람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진정한 긴밀함이 가치가 있고, 모든 곁형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아멘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는 자들에게.

B.D. No. 8373

1963년 1월 6일

내 말을 잘못 해석해 이미 많은 오류들이 생기고 전파되었다. 이런 오류를 없애고 순수한 진리로 다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순수한 진리가 자신을 가르치게 해 영접하기보다 오류를 더 즐겨 영접하고 이것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전에 나를 떠난 결과이다.

한때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지고 전적인 빛 가운데 있던 그에게 원죄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이 임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지 않는 한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남게 된다. 이런 불행한 인류를 위해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인간 예수로서 이 모든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다.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인간이 된 예수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여길 것인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대한 지식과 그가 인간이 된 이유와 구속사역을 알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이 전에 내가 스스로 가르쳐서 민족들에게 내 대리자로서 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만 만든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큰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즉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도피처를 삼는다면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나와 내 구속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가르침을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죄의 사함을 보장해줄 수 있었다.

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왜 자신들이 불행하며 짐을 지고 있는지 깨달음을 주는 사명을 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준 사명대로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죄 사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가 사함 받는 다는 확신을 줄 수 있었다. 그들은 나 대신에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게 전세계로 파송되었다.

그들은 내 영으로 깨우쳐져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죄악 된 상태를 깨달았고 나 대신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을 선포할 만한 권한을 주는 회개하려는 사람들을 분별해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내가 이 땅에서 거할 때 내가 했어야만 하는 일들을 나 대신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올바른 것이고 이런 뜻 가운데 이해하 여야만 한다. 이제 문제는 누가 이 땅에서 내 올바른 대리자로서 사역하는 가이다. 단지 이것에 따라서 죄 사함의 선포가 인간으로서 가능하다. 다시 말해 내 뜻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왜냐면 자신을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내 영에의 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죄를 사해줄 사람의 혼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을 내 대리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이웃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 영으로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이 사역의 영적인 이유와 큰 원죄를 안다. 그러므로 내 영의 역사가 그에게서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을 내 대리자라고 내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점을 볼 수 가 없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웃들의 혼의 상태에 대해 판단하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받은 사람은 만약에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가서 예수님께 직접 자신의 죄 사함을 구하지 않으면, 자신의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사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하는 안도감을 주는 선포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 된 가르침으로 미리 정해 준 관습을 행함으로써 이제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믿고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혼들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에게 원죄로부터 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단지 순수한 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단지 사람들을 우유부단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이웃이 나 자신이 이 약속을 주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죄 사함을 선포해 자신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안전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은 이제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나 스스로 내 올바른 제대로 선택한 자들은 이 말씀의 권세를 항상 유지하며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말이 절대로 자기 자신 스스로나 또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내 제자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나 자신만이 누가 나를 올바르게 섬기는지 나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또 다시 내 복음을 모든 진리 가운데 전하고 오류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이와 싸울 이 땅의 내 진실 된 대리자를 택한다. 단지 진리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빛이 되기 때문이다.

이 진리 안에서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한 길을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나를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아멘

죄의 용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B.D. No. 5428

1952년 7월 4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라. 너희 사람들은 아직 서로 적대감을 너무 자주 허용한다. 너희는 아직 너희의 원수들에게 사랑을 줄 수 없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너희는 아직 원수들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너희가 악한 일을 바라는 일을 삼가 할지라도 그들에게 좋은 일을 바라지 않는다. 너희는 필요한 인내를 행하지 않고, 너희가 모욕을 당하면, 화를 낸다. 그러므로 아직 전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 너희 안의 사랑이 더 이상 적대적인 생각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을 정도로 아직 권세있게 되지 못했다. 너희는 이웃을 형제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웃을 용서했을 것이고 그렇게 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그렇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너희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크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진지한 요청이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내 용서를 얻기 원하면, 너희의 채무자들도 용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야만 한다.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런 결심을 위해 너희에게 죄를 지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건을 내세워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고, 이웃의 죄를 오랜동안 용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모든 적대적인 생각은 응답하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데 적합하지 않은 반면에 원수에게 행하는 사랑은 원수 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람을 향한 모든 불쾌한 생각은 악의 세력이 흡수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 좋은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면 악은 단지 악을 낳고 그러므로 항상 단지 악이 반응하고, 악의 힘이 빠르게 증가되어 단지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악을 선으로 대항해서, 악을 약하게 하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야 한다. 너희는 좋은 생각을 보내야 하고 또한 너희의 원수들에게 단지 좋은 일을 기원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를 통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고, 좋은 생각은 속죄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즉 원한과 증오를 달래고 다시 좋은 감정이 깨어나게 하고, 심지어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의 힘은 항상 선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면, 너희가 나에게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너희 자신이 적대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 엄격하게 판단하는 적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관대할 수 있느냐? 내 사랑이 너희 죄를 용서한다면, 너희의 사랑이 관대하게 행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의 원수에게 선한 생각을 하고, 너희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항상 너희 안의 사랑이 판단하게 하라. 사랑은 확실하게 용서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증오와 복수의 느낌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나 자신이 있

고, 나는 진실로 사랑이 없이 판단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의 죄인을 용서할 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이다.

아멘

죄의 용서.

B.D. No. 5261

1951년 11월 27일

이지가 분명하게 나에게 향하는 일은 또한 나에게 사람의 심장의 변화되었음을 증명하고, 사람이 나를 갈망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가 지금까지 가던 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가 자신의 저항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를 주님과 아버지로 깨달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로써 실제 목표에 달성한 것이고, 사람이 영원으로부터 뒤 따랐던 내 대적자와 결별을 한 것이고, 그는 내 영역으로 옮겨 왔고, 두 개의 영역을 교체했고, 빛을 찾고 어두움을 피한 것이다.

나는 사람의 심장 안의 의지의 변화를 항상 깨닫고, 힘이 전달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로써 나에게 향한 의지가 강하게 하고, 사람이 이제 나와 하나가 되는 그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한다. 의지의 변화는 피할 수 없게 성품의 변화를 수반한다. 인간은 자신의 성품이 그가 추구하는 나의 원래의 성품을 닮아 가게 한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의지는 피할 수 없게 죄와 불의와 사랑없음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혐오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아직 나에게 향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심장을 다해 나를 추구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죄인은 나와 연합하려는 갈망이 아직 전혀 없다.

그러나 죄인에게 훈계와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악한 상태를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상태를 최악된 상태로 깨달을 수 있고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면 죄짐이 죄짐으로 그를 압박하고 그는 이런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죄를 구원하는 분으로 소개하면, 그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짐을 고백하고 그의 피를 의지해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옮긴 것이고, 사랑을 나를 향해 옮긴 것은 아니다.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역을 믿는 자신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얻은 은혜의 보물을 활용하는 일을 통해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유일하게 죄만이 그를 예수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를 예수에게 이끌어야 한다. 사람은 먼저 나를 생각한 다음에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내 안에서 최고의 응답하는 사랑을 얻고, 그는 자신의 죄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짐이 나와 연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없애기를 원하게 된다. 왜냐면 그에게 내 사랑이 그의 죄를 갚는 일보다 그에게 더 크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에게 죄짐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인간 겉형체가 유일하게 이미 죄를 지은 영적인 존재이고, 혼은 실제 이미 더 완성에 도달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은 아래로부터 왔다. 즉 혼은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통과했고 이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할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 구성이 된다. 그러므로 혼은 이 땅에서 자신의 성품의 변화와 의식적으로 나를 추구하는 일을 통해 이전의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한다. 혼이 자유의지로 행하는 일이 단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향한 의지가 또한 이전의 죄를 인정할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혼이 나를 향한 저항을 포기하고, 이로써 나를 영원한 창조주요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의지의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할 수 없다. 왜냐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단지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혼이 가장 깊은 겸손으로 내 앞에 복종하면, 심장 안의 사랑이 이미 불이 붙은 것이다. 그러면 혼은 이전의 자신의 저항을 죄로 깨닫고, 겸손하게 나에게 자신을 내어 주고 또한 혼을 사랑하는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심장으로 고백한다. 그러므로 혼은 아버지를 갈망하고 나에게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내가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한다. 심장을 들여다 보는 나는 사랑의 정도와 사람의 의지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 내 사랑과 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한다. 왜냐면 한번 의지적으로 나를 찾고 나를 고백한 존재를 내가 더 이상 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타락한 존재가 높은 곳으로 일어선다. 존재는 더 이상 죄 안에, 사랑이 없는 결과인 나에게 저항하는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또한 나를 향한 가장 작은 저항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경멸하게 될 것이다. 존재는 실제 다시 타락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연약함 때문이고, 타락한 후에는 즉시 이미 나에게 속한 사람에게 고통스럽고 안타까워하는 후회가 뒤따르게 될 것이고, 내 사랑은 내가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곳에서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면 혼이 스스로 가혹하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고 용서를 구하는 혼의 요청은 높은 곳을 향한 고통스러운 외침이고, 내가 진실로 이런 외침을 듣지 않고 사라지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죄의 용서.

B.D. No. 5262

1951년 11월 29일

너희에게 말하는 영의 음성을 들으라. 어떤 죄도 너무 커서 내 사랑으로 지울 수 없는 죄가 없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절대로 내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일은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너희는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해야 한다. 너희는 죄를 죄로 깨달아야만 하고 의식적으로 내 용서를 간청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너희에게 아주 선한 영원한 사랑으로 인정할 때 너희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의 불의로 인해 이 사랑을 모욕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죄는 사랑에 대한 범죄이고, 죄는 항상 내 사랑에 근거한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너희가 사랑이 없이 행했어야만 하고, 어떤 악한 것으로 선에 대신 했어야만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온전하게 아는 가운데 계명을 어겼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 안에서 참되고 진지한 후회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비로소 죄가 너희를 짓누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죄를 혐오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겸손과 회개의 죄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한다면, 너희의 죄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를 너희를 위해 형체를 입었고, 이

로써 너희가 인격적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희를 위해 죽은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수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 할 분이고, 인간적으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간 분이 고, 이 땅에서 나와 연합을 이루었고 이로써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충만함으로 나를 자신 안으로 모실 수 있었다. 그와 나는 하나이고, 단지 그를 통해 내가 너희를 위해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전혀 상상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서 너희와 같았고, 인간의 모든 오류와 약점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또한 자신 안의 사랑을 가장 크게 성장시켰고, 사람들이 죄짐을 그에게 옮기고, 그들의 죄를 그에게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간청할 때, 그가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죄짐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장의 음성이 단지 용서를 구하는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고, 나는 단지 그런 요청을 듣는다. 사람의 심장이 느끼는 것처럼 나도 느끼고, 내 사랑도 심장이 나에게 보내는 부름에 따라 요청을 들어주는 역사를 하거나 또는 사랑을 숨기는 역사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사랑을 부르면 성취가 된다. 그러나 심장이 침묵하면, 입으로 고백하는 일은 소용이 없다. 왜냐면 사랑이 유일하게 구원하고 구속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B.D. No. 7442

1959년 10월 31일

너희가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진지하게 받기 원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너희 모두는 너희의 죄에 대한 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로 가지고 간 죄짐은 엄청나게 컸다. 왜냐면 내가 짊어진 죄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짐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인류가 범한 원죄였고 이 땅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행한 모든 죄였다.

나는 모든 죄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비록 죄가 아주 크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이 죄를 짊어졌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심장을 다시 주기를 원했고 그러면 너희가 단지 유일하게 깨끗한 심장 안에서 나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얼굴을 대면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너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기 원했다. 나는 너희를 짓누르는 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나로부터 떨어져 있게 만드는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구속사역을 통해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구속받으려는 의지를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나에게 구해야 한다. 왜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가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죄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항상 구속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

게 다가와 너희의 구속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내 대적자가 영원한 기간 동안 너희를 묶어 두고 있는 연약함과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에게 충만해지고 너희 안의 사랑이 불이 붙어 밝은 화염으로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혀 사랑이 없는 자가 너희를 더 이상 자신의 권세 아래 두지 못한다. 자신이 사랑인 분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 심장 안에 자신의 빛을 비춘다. 왜냐면 심장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었고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너희 심장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너희는 그의 뜻에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에게 성전으로 준비한 너희 심장 안에서 거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피할 수 없게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하고 받았어야만 한다. 진지하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일이 너희에게 전적인 용서를 보장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짐을 진 심장이 자신을 부르는 모든 부름을 듣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너희 요구를 성취시키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내 심장으로 끌어 드린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내 피를 흘린 구속받은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의 죄의 고백을 원한다. 고백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자신이 연약하고 불행한 피조물임을 알기 때문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속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자유가 없이 영의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아주 커서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원했고 자신 안에 거하는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그들에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죄를 해결하기 원했다. 그는 그의 사랑이 아주 커서 모든 사람이 단지 아버지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축복에 도달하게 돕기 원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게 했다. 죄는 나와 존재들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했다. 이 간격은 극복돼야만 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속사역과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간격을 극복했다.

그는 사람들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도달하게 도왔고 그는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이 축복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너희가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너희는 깨끗함을 받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향하는 길과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보다 먼저 간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길을 열어준 것이다. 축복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아멘

너희는 예수 안의 나에게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을 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속하게 되고 나는 너희를 지키고 그의 모든 길에서 보호한다.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너희는 의도적으로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나 자신에게 향한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의 원죄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너희가 나에게 전적으로 모두 헌신하고 나에게 복종하려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실행에 옮겼다.

너희는 나에게 속하게 되었다.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그로부터 너희가 자유케 되게 구매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너희의 죄짐을 그의 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속하게 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염려할 것 없이 끝까지 살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내 대적자에게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꺾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해 사랑 앞에서 무기력한 대적자에 대해 월등한 권세를 얻은 한 사람 안에서 그를 이겼다.

이제 사람이 이 땅에서 견디어 내야만 하는 것은 단지 그가 저세 상의 나라에 들어 갔을 때 높은 정도의 빛을 비추임 받기 위해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의 혼을 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죄사함을 구함으로 원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혼은 최고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나와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들은 그들의 온전한 상태로부터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사랑이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비록 그들이 의무 단계에서 심김을 통해 다시 어느 정도 성장에 도달했지만 그럴지라도 이 땅의 삶에서는 의식적으로 다시 나로부터 사랑의 비추임을 얻어야만 한다.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사랑을 행함을 통해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랑의 정도를 높여야만 한다.

이런 사랑의 정도는 그러나 낮을 수 있고 바로 이 때문에 자기 혼에게 작업을 해 사랑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사람들이 할 일이다. 이를 통해 혼은 수정처럼 선명하게 되고 항상 더 강한 빛의 비추임을 영접할 수 있다. 너희는 "죄사함의 용서"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이 땅에서 의식적으로 사랑을 행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너희의 혼을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 사이에 구별을 해야만 한다.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공훈의 역사를 통해 너희에게 선물 되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 스스로 불 지펴서 가장 밝은 화염으로 타오르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은 혼은 실제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정도는 전혀 서로 다르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자신의 사랑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잘 활용해야만 한다. 사랑의 정도가 높을 수록 그는 그의 육체의 죽음 후에 축복될 것이다. 사랑과 고난은 혼을 정화시킨다. 사랑과 고난은 너희에게 항상 높은 빛의 정도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을 축복해야 한다.

왜냐면 고난은 너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 있는 돕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은 자주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의 관점이 사람들의 아주 큰 영적

인 위험을 알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돕기를 위해서 자유의지로 가장 큰 고난을 스스로 짊어진 분에게 향한다. 왜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를 알고 있는 사람 안에 한번은 특히 큰 고난 가운데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영접할 것인지는 다시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의 파장은 거절받을 수 있고 혼은 계속해 큰 위험 가운데 거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작은 사랑을 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이미 그들에게 밝은 깨달음의 정도를 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공개적인 대적자는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적자는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사랑을 행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충분하게 제공 된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로써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 증가 된 능력을 준다. 왜냐면 예수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영접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사람들을 도움이 없게 보호함이 없게 능력이 없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서 각각의 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끝 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어두움의 권세에 묶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진실로 행하지 않고 놔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던 내 모든 피조물들을 뒤 따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한 근원은 내 사랑이다. 왜냐면 이 사랑은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신성 자신이 이 땅에 임한 것이다.

신성이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 안에 채워졌고 그 안에서 대적자의 사슬 아래 고통을 당하며 자신을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긍휼의 사역을 완성했다. 그는 이 사슬 풀어주었다.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원인인 큰 죄를 그가 용서해 주었다. 그가 너희에게 너희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아멘

큰 죄짐이 저세상으로 들어가는 일을 막는다. 파문.

B.D. No. 3307

1944년 10월 26일

인류가 스스로 짊어진 죄짐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일을 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사람은 죄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움이나 사랑 없음을 나타내는 곳에서 사람은 죄를 짓는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악한 행동을 통해 죄짐을 증가시킨다. 그가 그런 행동을 혐오하지 않고 동의한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신이 이 땅이나 저세상에서 짊어져야만 한다. 죄가 측량할 수 없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 저세상에서 죄값을 치를 수 없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단지 짧고, 저세상에서 성장하는 일은 특정한 성장 정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고, 날마다 매시간마다 새롭게 사랑 없는 행동을 하는 정도로 자신의 죄를 지시는 사람은 이런 성장 정도에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에 계속 머물러야만 한다. 그들은 죽은 후에도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의 죽음은 단지 걸형체의 변화를 의미 할 뿐이다. 그들의 혼은 다른 걸형체를 받게 되고, 단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계속하여 이 땅에 살아야 한다. 왜냐면 그들의 과도한 죄로 인해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해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죄가 속죄를 필요로 한다. 그들이 영의 나라에서 영원한 세월 동안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그들이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가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자유를 다시 추구하기 위한 다른 가능성을 만드는 역사는, 비록 혼에게 다시 새롭게 의지의 자유가 주어지기 까지 끝없이 긴 기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의 상태에서 동시에 더 높은 성장을 의미하는 일을 하도록 인도를 받는다. 반면에 저세상의 영의 나라에서는 존재에게 어떤 힘도 부족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그의 활동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마비된다. 따라서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잔인한 역사도 이 땅에서 자유의지로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통해 한 때의 지은 죄를 여러 배로 증가시킨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의 사랑의 역사이다.

사람들이 돌아서서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은 죄 위에 죄를 쌓고, 그의 결과는 끔찍하다. 왜냐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드리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속죄해야만 하고, 모든 결과를 받아드려야만 하고, 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기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 그들에게 다시 자유의지가 주어질 때까지 창조물 전체의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만 한다.

아멘

너희가 너희의 이웃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는, 이로써 너희에게 사랑의 계명을 준 나 자신에 대해 지은 모든 죄는 너희에게 짐이 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미 죄짐을 지지 않았다면, 너희는 저 세상에서 너희 죄짐을 어렵게 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웃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공의로운 심판자가 너희에게 자신을 즉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자가 없다고 믿지 말라. 그러면 너희 이웃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믿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양심을 무더지게 한다. 그럴지라도 이를 통해 너희의 죄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 이성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너희 이성은 실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법을 안다.

너희 의지는 너희가 생각하고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너희가 죄 위에 죄를 지으면, 너희가 이웃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를 괴롭히고, 그의 위험 가운데 그를 도우면서, 유일하게 나의 눈이 마음에 들어 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그에게 행하는 대신에, 극단적으로 사랑이 없이 이웃을 대하면, 말할 수 없게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탄의 권세 아래 두는 것이다. 사탄은 이제 너희 혼을 너희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 갈 것이고, 너희의 자원함에 대한 보수로써, 단지 일시적으로 너희의 삶의 형편이 나아 지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 것이 너희 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너희의 죄가 차서 넘치게 하지 말라. 왜냐면 언젠가 끔찍하게 후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너희에게 묻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 그에게 선을 향한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선하게 되기 위해 의지를 모으라. 그러면 너희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죄의 늪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용서받고, 나의 눈 앞에 은혜를 입을 것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한 분을 경하게 여기지 말라. 그의 공의를 부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죄를 깨닫고, 나 자신이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너희에게 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 연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너희 스스로 나의 긍휼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고난을 줄여 줘라. 그러면 너희가 위험에 처하면, 나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이웃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곧 닥치게 될 심판의 날에 너희를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죄 짐이 너희를 바닥으로 짓누르지 않도록, 너희가 심판의 날에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왜냐면 내가 모든 불의를 알기 때문이다. 나의 눈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너희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의 죄가 들어 날 때에 나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나의 공의를 자신에게서 느끼게 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의 속죄는 가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죄에 합당할 것이다. 비록 나의 인내와 긍휼이 끝없을 지라도, 나는 공의

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일에 제한이 정해져 있다. 너희가 이 제한을 넘어서면, 말씀과 기록에 선포된 대로, 모든 죄에 대한 공의를 요구하는 심판의 순간이 다가 올 것이다.

아멘

저세상의 혼의 후회.

B.D. No. 4081

1947년 7월 10일

자신의 형편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스스로 이런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의식이 저세상의 혼에게 아주 큰 부담을 준다. 그러나 혼이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갈망을 느낄 때, 비로소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 그 전에는 혼은 냉담하고, 위를 향한 추구를 하지 않고 또한 아래를 향한 추구를 하지 않는다. 혼이 변장한 채로 혼에게 다가가는 빛의 존재의 도움을 통해 다른 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받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탈출한다는 믿음으로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려는 충동이 혼 안에서 깨어날 때까지, 혼은 단지 비할 데 없는 고통을 느끼고, 전적으로 의지가 없다.

혼이 이제 비로소 이 땅에서 하지 않은 일을 보충해야만 하고, 혼이 사랑으로 일해야만 한다는 것이 혼에게 분명해진다. 혼은 이제 또한 이 땅의 자신의 헛된 삶을 깨닫고, 활용하지 않은 많은 기회를 대한 아주 깊은 후회를 한다. 혼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혼은 곧 개선되는 일을 느낄 것이다. 왜냐면 혼이 후회를 느끼면, 혼은 고통 당하는 혼에게 사랑을 행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강박해진 혼은 더 타락하게 되고, 절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런 혼은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 자신의 불의를 절대로 볼 수 없고, 그러므로 후회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혼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비로소 혼이 위를 향하려는 추구를 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그러면 혼에게 성장을 위한 힘이 제공되는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들의 죄를 의식하게 되는 일은 항상 너희처럼 고통스러운 상태를 견뎌야 하는 혼들을 향한 연민의 결과이고, 이런 충동이 이미 혼에게 빛의 존재들의 도움이 제공되게 하고, 혼이 높은 곳에 도달하고, 들어서기까지 이런 도움이 줄어들지 않는다. 혼의 깨달음이 증가할수록, 혼은 더욱 열심히 저세상에서 사랑을 행하고, 자신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를 돕는다. 왜냐면 혼이 그들의 고통을 알고, 이 고통을 줄여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일은 이제 자신의 후회를 줄인다. 그러나 혼은 이제 마찬가지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비록 혼이 이 땅에서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인 하나님의 자녀권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혼이 이제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섬길 수 있다는 의식 가운데 축복되게 된다.

아멘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죄짐.

B.D. No. 4888

1950년 5월 1일

마지막 날에 죄가 드러날 것이다. 죽은 사람들도 또한 그들이 행한 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은 혼들이 이 땅의 삶에서 행한 모든 악한 역사와 모든 악한

생각과 의지가 마치 불로 지져 기록한 것처럼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혼은 자신의 완고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자신이 빛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면 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에 순종했을 때 혼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1950년 5월 3일)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고, 어떤 것도 숨겨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선과 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고 생각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의 처신이 악했던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결 받지 못한 동안에는, 즉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땅에서 이미 용서를 받지 못한 동안에는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적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을 진실로 아주 희귀하게 찾아볼 수 있다. 왜냐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한 동안에는, 단순한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고,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영적인 위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세상의 구세주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단지 공허한 말을 한다.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장 깊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고 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일을 막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에서 많은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을 무리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면, 다시 말해 한때 일어난 어떤 일도 비밀로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혼이 그들의 죄를 깨달아야만 하게 되면, 사람들의 죄짐은 아주 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즉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는 그들이 끝없이 긴 시간이 지날지라도 저세상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높은 곳에도 달할 수 없다. 왜냐면 그들 안에 사랑이 없고, 저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지 사랑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저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가 그들에게 내려갈 때, 구세주의 구원하는 손을 잡는다.

사랑이 없이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돕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죄가 그들을 끌어내리고 사슬로 묶는 것처럼 깊은 곳에 단단히 묶어두기 때문이다. 단지 한 분이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고,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 눈이 먼 가운데 이런 한 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영들을 구별할 것이다. 그럴지

라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손이 죄인에게 향할 것이고, 누구든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자신을 끌어 올리게 하는 사람은 새롭게 새 땅의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의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지에 합당하게 마지막 심판 후에 혼들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 하리라.

B.D. No. 6220
1955년 3월 27일

내 공의는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을 요구한다. 왜냐면 모든 원인에 그의 결과가 나타나는 일 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이기 때문이다. 모든 죄는 영원한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고 어떻게든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고 항상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죄는 영원한 내 질서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악은 항상 단지 악을 낳고 어떤 악한 행동도 결과가 없게 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은 죄짐을 지고 있고 절대로 영의 나라에서 자유한 가운데 축복되게 살 수 없다. 왜냐면 죄는 너희 혼에게 짐이고 악한 결과가 항상 혼에게 공의로운 보상을 하도록 기억나게 해줄 것이고 죄는 단순히 축복된 자유를 의식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혼이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절대적으로 회복해만 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내가 벌을 주는 일이 아니고 단순한 법이다. 왜냐면 내 나라에는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고 있고 죄값을 지불하지 않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가 없는 존재가 단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랑으로 가장 작은 사랑없음도 제거하고 이제 전적으로 영원한 질서 안으로 들어갔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으로 모든 죄를 능가하게 된 존재가 단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았고 여러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었던 존재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다. 왜냐면 존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의 길을 갔고 그의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았고 아직 그의 사랑을 확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사랑없음을 통해 죄짐을 높이 쌓아 존재가 이 땅의 삶 동안에 자신을 사랑으로 바꿀지라도 이 땅의 삶의 기간으로는 이런 모든 죄짐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공의는 존재의 죄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 호리라도 죄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내 나라의 축복을 선물해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지은 혼을 위해 드러지는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사랑으로 드러진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단지 내 공의가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인간 예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체해 있는지를 깨달았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짐을 가지고 영의 나라로 들어가면, 영의 나라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 예수는 또한 내 공의가 아직 대가를 치르지 않은 죄짐을 단순히 탕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을 자유한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 제사로 드렸다. 자유한 상태가 비로소 영의 나라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 자신의 빛을 갠달라고 구하고 구속역사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간 예수는 가장 작은 빛까지 갠었다.

이런 인간 예수의 구속사역이 없이는 내 나라에 축복된 존재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신과 하나님과 분리로 깨닫고 자신 안의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는 나를 향한 그의 의지의 결과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구속사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는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1955년 3월 27일) 자신의 죄를 의식하는 일이 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다가오게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용서해주기를 나에게 구한다. 그의 죄는 보응이 되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빛의 나라에서 구속역사에 참여하는 일이 이제 다시 그의 과제가 된다.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혼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 일은 자주 힘이 들고 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혼의 사랑이 혼에게 힘을 주고 혼은 이 힘을 사용하여 나와 내 나라를 섬긴다. 혼은 나를 섬기고 혼이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내가 실제 용서해준 죄에 대한 즉 없애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런 보상을 자원하여 받아들인다. 왜냐면 사랑이 이런 보상을 나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혼들은 영의 나라에서 아직 타락한 혼들을 나에게 데려오기 위해 쉬지 않고 활동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더 이상 죄책감에서 행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한 가운데 행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내 종일 뿐만 아니라 내 동역자로 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사소한 자신의 유익도 구하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과 내가 창조한 모든 영적인 존재를 향한 사랑으로 영의 나라 주민들의 축복을 위해 일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심연 속에서 고통당하는 혼들은 아직 그들의 죄짐을 지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죄짐을 부분적으로 속죄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고통을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그들의 죄짐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를 행한 분에게 그들의 죄를 넘길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제 깊은 곳에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더 큰 빛이 있는 영역으로 끌어올려지기 위해 나를 부르는 일로 나는 만족한다. 그들은 이제 빛의 영역에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어렵게 투쟁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구원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그들의 구원하는 일을 통해 이제 다시 그들의 많은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간수장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비로소 구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원하여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상쇄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된 일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그들이 구원역사에 참여하는 일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어둠 속에 거하는 혼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되고 축복되도록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땅이나 저세상에서 어떤 존재도 죄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를 위해 모든 죄는 속죄를 받아야만 하고 이런 속죄의 역사를 예수가 완성했고 너희 사람들은 이 땅이나 또는 저세상의 나라에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B.D. No. 5593

1953년 2월 2일

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을 어둠 속으로 밀어 내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깊은 곳을 추구하고,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자신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둠의 권세자가 그들을 점령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을 어둠의 권세자의 영역으로 끌려들어 가게 하는 방식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런 모든 혼들을 불쌍히 여긴다. 왜냐면 내 원칙은 한때 나에게서 나온 모든 존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위험과 그들의 불쌍한 상태를 보고 그들 모두를 돕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을 돕도록 허락하지 않는 동안에는, 내 대적자는 그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굳게 통제하고 있다. 그들의 의지가 내 대적자에게 그렇게 할 권리를 주지만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그들의 의지가 나에게 그들을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도울 권리를 부여한다.

나는 공의 하나님으로서 보상과 속죄를 요구해야만 할지라도 나는 누구에게도 죄짐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모든 죄인들이 그들의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속죄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활용할지는 모든 혼의 자유이다. 왜냐면 내가 혼에게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면, 자유의지가 혼을 멸망에 빠뜨리고, 가장 끔찍한 감옥과 같은 아주 고통이 충만한 상태로 빠지게 한다. 혼은 내가 그에게 이런 상태를 준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혼은 나를 자신을 어둠 속으로 쫓아내고 복수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여긴다.

혼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 왜냐면 혼이 어떡하고, 혼이 어디에 거하는 지는 혼이 자유의지로 추구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는 단지 자신의 의지를 통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이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면, 이런 상태가 즉시 개선이 된다. 내 사랑은 모든 혼을 붙잡고, 혼이 높은 곳의 나를 추구하면, 혼이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나는 실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한때 나에게 반역한 죄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요구하는 일은 단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일이다.

한때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서 돌이켜 타락한 것처럼, 그가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다시 향해야 한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그러면 나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를 보상하는 일을 쉽게 해주기 위해,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자원하여 나를 떠난 영적인 존재들이다. 내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깊은 곳을 추구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들을 다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자유의지와는 반대로 그들을 다른 영역으로 옮길 수 없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머물 것이다. 내 공의조차도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 의해 정복을 당한다.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공의를 만족시키는 길을 구했고, 피조물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조물들이 자신에게 다시 다가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신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내 사랑은 자신을 잃은 혼들을 깊은 곳에서 구원하기 위해 영원히 노력할 것이다. 내 사랑은 영원히 그런 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이다. 혼들은 깊은 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단지 이런 도움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나는 벌을 주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한때 내 사랑에서 나온 존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영원한 저주는 없다.

B.D. No. 6155

1955년 1월 5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는 없다. 영원한 저주도 없고 영원한 죽음도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런 일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존재를 돌보고 존재가 아직 깊은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존재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에서 나온 존재를 영원히 자신의 대적자에게 맡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분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존재 자신의 뜻이다.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에 의한 정죄라고 말할 수 없다.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런 일은 존재 자신의 잘못이고 존재 자신의 의지이고 존재가 언제든지 이런 간격을 줄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왜냐면 존재 자신이 단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존재가 스스로 불행한 상태를 만들고 이런 불행한 상태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존재에게 빛과 힘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이다. 왜냐면 존재가 빛과 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없이 죽은 존재가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게 위해 항상 노력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온전함에 기초한 그의 영원한 질서인 법을 지키는 가운데 존재에게 힘과 빛을 발산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그러므로 존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기간이 무한하게 길 수 있다.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고 영원을 단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에게 항상 자신의 불행한 상태를 끝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끝내는 일이 절대로 그 자신에게 맡겨져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항상 구원받을 가능성들이 제공되고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는 일은

항상 그의 자유의지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용서하지 못하지 않고 항상 돕고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고 축복되게 해줄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고 존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한때 생명으로 부른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피조물들을 절대로 전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빛과 힘의 근원에 자신을 단는 존재에게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고 힘으로 충만한 생명을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유의지는 모든 신적인 존재의 특징이고 자유의지를 없애는 일은 존재를 신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 영원히 온전하지 못하게 놔두는 일이다. 그러므로 불행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영원히 불행한 상태로 놔두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마련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갖게 놔두셨다. 이로써 존재가 이제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갈망할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사랑이 아주 강해 자신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영원한 심판은 잘못 된 가르침이다.

B.D. No. 7910

1961년 6월 4일

너희가 나를 심장 안에 모시면, 너희가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긍휼을 알지 못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 너희의 죄로 인해 영원히 너희를 저주한다고 믿지 말라. 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항상 단지 너희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빠져 들어갔던 깊은 곳으로부터 벗어나게 돕는다.

너희 자신이 너희의 죄를 통해 불행한 상태를 했다. 너희 자신이 너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태를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깊은 곳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다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축복되게 될 수 있게 항상 또 다시 도울 것이다.

너희 자신이 악을 원했고 악을 너희에게 끌어들였다. 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고 불행한 상태는 너희가 자유의지로 추구했고 행했던 결과이다.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 왜냐면 너희가 그의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고 그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항상 너희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랑은 너희에게 다시 축복된 운명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를 위해 비록 너희의 자유의지가 필요할 지라도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난 것처럼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무거운 죄를 스스로 지은 것처럼 너희는 자유의지로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 초기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연결된 가운데 넘치게 축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너희가 스스로 택한 운명에 맡겨 두거나 너희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저주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나는 이런 관점에 내 사랑과 긍휼로 너희의 죄를 위한 내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으로 반론한다. 내가 한 때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를 영원히 심판하면, 내 구속사역은 실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과 긍휼을 증거했다. 나는 나 자신을 희생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희의 죄짐을 위해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했다. 이를 통해 너희는 이미 영원히 심판한다는 가르침이 잘못임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내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반대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내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므로 절대로 너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증명한다. 심판하는 하나님은 나와 내 성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나와 내 성품은 사랑이고 내 피조물이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빠졌던 불행보다 더 큰 불행에 그들이 빠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다시 얻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졌다. 왜냐면 내가 모든 타락한 존재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고 내가 그들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조물로서 이 땅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 내 긍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로 나로부터 더 멀어 떨어져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불행하다. 만약에 그가 나 자신에게 의뢰하면, 그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며 이 사역을 자신을 위해 활용하면, 그가 스스로 멸망 받는 운명을 끝낼 수 있는 멸망 받는 운명을 택한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돕기 원하는 스스로 자신의 자녀를 갈망하고 항상 옆에서 도와 주려고 서있는 단지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자녀가 돌아오게 강요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할 때까지는 그의 운명은 축복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 온전한 성품에 속한 공의가 너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된 너희에게 축복된 운명을 제공 수 없다. 너희는 내 구속을 통한 너희의 죄의 속죄를 먼저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고백하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린 사람들 무리에 너희가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진실로 더 이상 분노하는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향한 내 사랑을 체험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지은 죄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속죄한 그가 너희와 다시 하나가 되고 그의 사랑의 힘을 너희에게 비추기 때문이다.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축복되게 남을 것이다.

아멘

혼을 정화하는 고난과 환난.

B.D. No. 3691

1946년 2월 19일

너희가 궁핍과 환난의 날을 종말의 때까지 사는 일이, 너희가 육체의 행복한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일보다 진실로 낫다. 그런 삶은 영원 가운데 너희에게 고통과 말할 수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42/44

없는 고난을 의미하는 운명을 너희가 짊어져야만 하게 한다. 종말의 때에 환란을 당하는 사람의 혼을 내가 사랑과 인내로 영접하고, 모든 어려운 운명으로부터 지킨다. 그러나 염려 없이 세상의 부를 누리며 살고, 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혼은 개선이 될 수 없고, 그들이 이 땅의 상급을 요구하거나 또는 나의 대적자가 그에게 세상의 재물을 줄 정도로 나의 대적자에게 속한다면, 그들은 세상의 상급을 받는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너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 안에서 너희를 얻기 위해, 너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강제로 바꿔줄 수 없는 너희의 혼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는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 고난 가운데 나를 깨닫고, 고난의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라. 고난을 통해 올바른 유익을 얻으려고 하라. 너희가 견뎌야만 하는 모든 고난의 목적대로 너희가 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나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심하게 대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의 부드러운 손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손이 너희를 아프게 한다면, 깨어나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라.

단지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의 너희의 운명은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면 종말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종말이 너희에게 축복이 되게 하라. 종말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게 하라. 이로써 너희가 다시 한번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가야만 하게 만들지 말라. 육체의 필요를 돌볼 뿐만 아니라, 혼이 환란을 통해 정화되고, 육체가 혼에게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혼이 뒤로 물러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너희의 혼을 돌보라. 세상을 갈망하지 말고, 단지 영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라. 왜냐면 이 땅의 생명은 끝이 나지만, 영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죽은 후에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통과 환란을 통해 이전에 너희를 형성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운명을 순복하며 받아들이라. 너희의 운명을 내 손에서 받아드리고, 고난과 환란 속에서 나를 깨달으라. 나의 뜻이 없이는 아무 일도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너희 자신이 나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순종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모든 일을 견딘다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최선이 된다는 것을 알라. 왜냐면 혼이 그를 통해 자신을 위해 유익을 얻는다면, 나는 육체의 짐을 덜어주고, 그의 삶을 더 견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말에 때까지 짧은 시간이 남아 있고, 이 시간을 모든 방법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너희 혼이 아직 나를 대적하고, 그럴지라도 나의 사랑이 아직 너희를 너희 맘대로 놔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고난을 통해 너희의 의지를 바꾸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너희는 주어진 크기의 고난을 인내하며 짊어지는 가운데,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에게 주어진 죄짐의 일부를 상쇄하면서, 너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내가 아직 이 땅에서 너희에게 너희의 죄짐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라. 왜냐면 너희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이 땅에서 나에게 속하게 되려면, 너희가 단지 이런 일을 통해 정화가 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잘못하면,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너희에게서 철회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너희를 붙잡아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고, 너희가 너희의 불의를 깨닫고 진지하게 내 눈 앞에 올바르지 않은 모든 것을 피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너희의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가 노출되는 유혹을 안다. 나는 또한 나를 향한 너희의 의지를 알고 이런 의지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쓰러지면, 너희가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다. 나는 잦은 실패와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늦추지 않고 그의 투쟁을 지속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나는 그에게 항상 또 다시 힘을 준다. 왜냐면 비록 내 피조물들에게 죄가 있을 지라도 나에게 속한 내 피조물들을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유혹하기 원하는 자에게 맞서 모든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너희는 항상 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함을 증명해야 하고, 내 사랑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항상 계속하여 내 사랑을 갈망하고, 너희에게 죄가 되는 일을 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내 사랑과 은혜에 너희 자신을 의탁해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유혹자로부터 보호를 구해야 하고, 생각에서 나를 제외시키지 말아야 하고, 일상적인 일에서 나를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자주 내 말씀으로 너희를 강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나와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이로써 내가 항상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너희에게 다가 오는 유혹 앞에 너희는 점점 더 단호해질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통해 유혹자를 정복할 때까지 유혹자가 너희 혼을 얻기 위해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든 심장으로 갈망하는 내가 가진 사랑이 너희가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너희는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너희를 잃기를 원하지 않는 대적자가 너희에게 아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 대한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면, 대적자의 유혹이 비로소 줄어들다.

그러나 나는 심장의 모든 동요를 알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는 의지가 있는 지를 알고, 누가 아직 연약한 지를 안다. 그러나 나는 대적자가 너희에게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만 하고, 결정하는 일을 너희 자신에게 맡겨야만 한다. 너희가 내가 싫어하는 일을 행하기 원하면, 나는 너희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 아버지의 보호 아래 다시 받아드려 지기를 구하는 자녀의 요청에 귀를 닫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너희가 요구할 때마다 너희에게 힘을 준다. 그러므로 너희가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말고 후회하는 가운데 나에게 나오라.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진지하게 용서받기를 원하면, 나는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